

“전쟁 같았던 클래식 생존, 욕 봤데이”

사커 피플

대구FC 조광래 대표

“복명이 주니오·에반드로…잔류 일등공신 취임 때 말했던 약속 지킨 것이 가장 기뻐
내년엔 6강 목표…동계훈련서 뒋심 강화”

“정말 욕 많이 봤데이…. 힘들었제?”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90분이 흐르고 대구FC 조광래(63) 대표가 어깨를 툭 치며 던진 파스한 말에 안드레(45·브라질) 감독대행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안드레 대행도 어지간한 한국말은 잘 알아듣는다.

시즌 중에 물러난 손현준(45)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자기 물려받은 기어부터 유난히 잦은 판정시비로 어려움을 겪은 시간까지 마음속 가득한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눈물로 변해 주체 못하고 흘러내렸다.

대구가 살아났다. 지난달 2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017' 3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면서 승점41을 쌓은 대구는 남은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클래식 잔류를 확정했다. 조광래 대표는 “(사장)취임 때 약속을 지

킨 것이 가장 기쁘다”고 털어놓았다. 2014년 하반기 부임한 그는 첼린지(2부리그)에 머문 지난 해를 기점으로 3가지 약속을 했다. 2016년 승격~2017년 잔류~2018년 6강(상위 스플릿) 진입을 공표했다. 그리고 조스미세 2019시즌을 기점으로 우승권에 도전하는 전력을 완성시키겠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정말 생각대로 이뤄졌다. 포항 원정은 쉽지 않았다. 후반 초반 2골을 몰아치며 앞섰으나 막판 20분간은 쫓기고 또 쫓겼다. 고질인 뒋심부족으로 흑어나 동점골을 내주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 잘 버티면서 올 시즌 최종 목표를 채웠다.

조광래 사장은 이런 결과가 오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막연한 구상만을 발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지난시즌과 비교해 전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첼린지 우승권과 클래식 잔류는 전혀 다르다는 기준 속에서 대부분은 대구를 강등 1순위로 꼽았다. 조 대표는 정반대로 바라봤다. 팀 골격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보강만 이뤄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여겼다.

이 과정에서 주니오~에반드로가 합류했다. 목적은 달랐다. 개막전 부상으로 일찌감치 전열을 이탈한 주니오를 대신하기 위한 대타가 에반드로였다.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었다. 잘 짜여진 재할 프로그램을 거친 주니오가 완전히 살아났고, 에반드로는 내내 120% 실력을 발휘했다. 각각 11골, 10골을 기록하며 대구 잔류의 일등공신이 됐다.

“복명이 따로 없다. 정말 고맙다. 팀을 향한 애정도 대단하다. 한국생활에도 만족해하고, 팀 플레이에도 확실히 나아졌다.”

솔직히 조 대표는 하위권 다름이 익숙하진 않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했어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을 때는 가장 재미있는 축구를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도민구단 경남FC의 첫 전성기를 만든 사람도 조 대표다. 항상 목표를 현실로 바꿔놓은 노하우는 다른 이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지난해는 거의 팬의 마음으로 현장을 지켰다. 올해는 정말 중압감이 엄청났다. 즐길 수 없었다. 매 순간이 전쟁이었다. 책임자라는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안드레 대행과 공합도 잘 맞았다.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가끔씩 전달하는 메시지를 조연으로 잘 받아들이었다.”

이미 조 대표는 다음시즌 구상도 그려놓았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안드레 대행을 비롯한 브라질 트리오(주니오~에반드로~세징야)는 데려갈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거칠 과정이 있어 당장 발휘수는 없지만 이들의 잔류 가능성은 크다.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 내년에도 큰 틀은 유지된다. 올해를 준비할 때와 변화의 폭은 많지 않을 거다. 동계훈련도 각오를 단디할 필요가 있다. (2018 시즌 목표인) 6강에 오르기 위해선 지금처럼 뒋심이 약해선 안 된다. 후반 중반 실점을 확 줄여야 한다. 본격적인 동계훈련을 시작할 때 강철 체력과 집중력 강화를 철저히 주문하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고난을 뚫고 클래식 잔류에 성공한 조광래 대구FC 대표는 올시즌 모든 순간을 전쟁으로 표현했다. 그만큼 정글에서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았다. 취임 목표를 이룬 조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2018 구상에 들어갔다. 스포츠동아DB

쓸 때 쓰고 아꼈 때 아끼는 전북…‘최강 클럽’ 도약의 힘

전북 왕조의 힘

글 쓰는 순서

- 1 최강 명장 반열 오른 최강희
- 2 변치 않는 투자+효율 경영의 힘
- 3 이제 ‘100년 클럽’을 향해!

전북현대대는 2000년대 들어 2차례 아시아 정상(2006·2016)에 올랐고, 5차례(2009·2011·2014·2015·2017) K리그를 평정했다. 명실상부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최강 클럽이다. 세상 어떤 일이 그렇듯 과정이 없는 결실은 없다. 남들이 정제하거나 쇠뿔할 때 전북은 부지런히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모두가 투자 없이 ‘어떻게든 되겠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할 때 유일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순한 견제와 시기, 질투에 굴하지 않고 전북은 흔들림 없이 그들만의 마스터플랜을 밀바람 삼아 도전했고 또 성취했다. 바야흐로 지금은 전북의 전성시대다. 3회에 걸쳐 전북 왕조를 해부했다.

모기업 현대차, 경영 악화에도 통 큰 지원 전력 보강에 심혈…실책 두려워하지 않아 선수 이적 땀 최대한 제 값…효율적 경영

전북현대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바로 지속적인 투자다. 프로스포츠에서 자본의 힘은 막대하다. 최근 K리그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신용하고 있지만 전북은 변함이 없다. 효율적인 경영은 강조하지만 대책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지는 않았다. 초록 그라운드에서 발휘되는 ‘다국(다치고 공격)’의 기조는 구단의 공격적인 행정과 선수보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의 전북 시대를 이룬 배경은 역시 투자다. 대규모 클럽하우스 건설부터 수준급 선수영입까지, 어느 하나 신경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없다. 물론 하루루 돈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만큼은 굳게 지켰다. 지난달 29일 클래식 우승 직후 환호하고 있는 전북 선수단. 전주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변함없는 지원

최근 모기업 현대자동차의 경영사정이 마냥 좋지는 않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돈을 쓸 수 있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현대자동차 정이선 부회장은 “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을 아끼지 말라. 선수도 영입하고, 인프라 확충에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을 밝혀왔다.

전북 완주군에 클럽하우스를 건립할 때도 정 부회장은 “기왕 진행하는 것이면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최고의 시설, 최신키 모델로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전북은 클럽하우스 설계 당시, 유럽 명문 클럽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벤치마킹했다. 산출된 비용이 당초 책정된 예산을 크게 웃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주지함이 없었다.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는 전북의 클럽하우스는 지구촌의 주요 축구인들이 즐겨 찾는 K리그 대표 명소가 됐다.

구단주부터 나선 통 큰 지원은 전북의 성장에 엄청난 힘이 됐다. 당연히 전력 보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선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과는 최대한 접촉한다. 물론 무조건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패 확률이 있다고 해서 접촉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최강희 감독도 깊은 신뢰를 전달한다. 돈은 자신이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믿음을 심어준다. 지난해 공격수 김신욱이 그랬고, 올 초에는 국가대표 원족 풀백 김진수가 독일 분데스리가(호펜하임)를 떠나 녹색 유니폼을 입고 우승 공신이 됐다.

솔직히 영입이 실패할 때도, 또 어렵게 데려온 선수가 적응하지 못해 기대이하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전북이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효율경영으로 단한 리딩 클럽

전북은 외부의 시기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전북 주도의 이적시장을

놓고 “혼자 살려내는 것이나, 욕심을 버려라. K리그가 살아야 전북도 살아 남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전형적인 하향평준화 논리다.

남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몸을 움츠릴 필요는 없다.

유럽과 남미, 지구상 어디에서나 독보적인 클럽은 있다. 그나마 올해는 반갑게 동반자가 나왔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여러해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전북과 대등하게 싸웠다. 강원FC도 도민구단의 한계를 딛고 국가대표급 자원들을 모아 사상 처음으로 스플릿 라운드 상위리그(1~6위)에 진입했다.

최강희 감독은 “제주와 강원이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전북도 꾸준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제주리는 경쟁자가 있었기에 전북의 우승 레이스는 힘들었지만 더 돋보일 수 있었다.

전북은 무작정 돈을 쓰지 않는다. 다만 가장 가치 있는 사용을 고민한다. 장기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제 값을 받고 이적시킨다. 최대한 몸집을 탄탄히 하고픈 선수단 입장에서는 분명 서운한 일이지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 스폰서 및 티켓 판매 등 수익구조가 자주 요동치는 상황에서 특정 선수를 팔고 얻는 지금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이다.

전북은 모기업 홍보에도 열을 올린다. 2018 러시아월드컵 휴식기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을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현지 프로모션에 동참할 계획이다. 거창한 프리시즌 투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남아시아가 매력적인 시장임을 틀림없다. 전북 관계자는 “비수도권 클럽의 태생적인 한계를 딛고 점차 성장해나가고 있다. 여가저가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팀들도 많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학범 감독

강등위기에 빠진 광주 절박함이 운명 바꿀까

잔류 확정 대구·포항과 연달아 대결
전남·인천·상주 혈투도 광주에 호재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종전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합니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광주FC가 절박하다. 5년만의 첼린지(2부리그) 강등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놓여있다. 남은 경기는 이제 단 2게임뿐. 자칫 한 걸음이라도 미끄러진다면 2012년 이후 또 다시 강등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하위권 생존경쟁은 뜨겁고도 뜨겁다. 광주가 6승12무18패로 승점 30을 마크한 가운데 전남 드래곤즈가 승점34로 11위다. 상주 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나란히 승점35다. 네 팀 가운데 최하위로 추락하는 팀은 곧바로 첼린지행 열차에 탑승해야 한다. 11위 팀은 피를 말리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클래식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

눈길 가는 팀은 역시 광주다. 레이스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6경기 무패(2승4무) 바람을 타면서 강등권 싸움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팀 안팎으로 위기감이 감도는 만큼 광주 선수단은 절박한 마음을 안고 스플릿라운드에서 승점 3을 위해 90분 내내 사투를 벌인 장면이 그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하나 있다. 바로 광주의 잔여 일정이다. 공교롭게도 남은 2경기 모두 클래식 잔류가 확정된 팀들과 치른다. 스플릿라운드 4차전이 예정된 4일엔 8위 대구FC를 만나고, 18일엔 홈에서 7위 포항 스틸러스와 최종전을 펼친다. 절박할 면에서 광주를 따라올 팀은 없다.

반면 나머지 하위권들은 모두 외나무다리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전남과 인천이 5일 만나고 인천과 상주가 18일 맞붙는 일정이라 서로 치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승점 쌓기가 녹록지 않은 전망이다. 과연 잔여일정의 변수가 이들의 운명을 뒤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재성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동국이형…몸 관리 배웠죠”

〈전북현대〉

전북현대대의 이재성(25)은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에서 팀의 통산 5번째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한 그는 시즌 중반 체력부담이 커지면서 잠시 부진에 빠지기도 했지만, 7골·9도움을 기록하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몸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더 깨닫게 된 한해였다.

이재성은 신인시절부터 원정 이동 때면 최선 참 이동국(38)과 한방을 써왔다. 30대 후반의 나

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경기력을 자랑하는 이동국과의 생활은 전성기에 접어들어 이재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경기장 뿐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이)동국 형을 보고 배운 것이 많다”고 했다. 이재성이 본 이동국의 몸 관리 비법은 일관성이다. “동국이 형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편이다. 잘 먹고 잘 쉬는 것 없이 영양보충을 한다. 잠자는 시간도 거의 일정하

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렵기도 하다. 낮잠도 일정한 시간에 잔다. 경기력 유지에 낮잠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꾸준한 몸 관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동국은 지난달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스플릿라운드 홈경기에서 개인통산 200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K리그에 또 하나의 역사를 새겼다.

경기 후 이동국은 자신의 은퇴시기를 언급했다. 이재성은 “훌륭한 선배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도 더 발전할 수 있었다. 동국이 형은 지금도 늘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팀에 꼭 있어야 하는 선수다. 은퇴하기에는 지금 실력이 너무 아깝지 않다. 계속 팀에 남아서 후배들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면서 선배를 향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